

1. 사순절 2주차입니다.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며 사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나누어 드린 묵상집을 매일 한장씩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.

2. 금요기도회 :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,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. 창세기 강해를 이어갑니다.

3. 교회공사 마무리 과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4. 말씀묵상 및 실천

1)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나 생각을 구하거나 느꼈던 일이 있습니까?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?

2) 하루에 가장 많이 얼굴을 마주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? 한 주간 동안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보세요.

예배 및 모임시간 안내

은세대 주일예배	주일오전 11:00 소예배실
교회학교 예배(초등생까지)	주일오전 10:00 소예배실
금요기도회	금요일 저녁 7:30, 소예배실
성전기도	월~토요일 오전 6시~오후 6시
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	주일오후 2시, 세미나실1 (진행시)
PGS 바이블 아카데미	주일오후 2시, 세미나실1 (진행시)

온라인 헌금 안내

은행 : The Bank of Princeton
 예금주 : Philadelphia Korean Methodist Church
 계좌번호 : ABA (routing) 031207940 / Account No : 4600005732
 Check 로 헌금 시 Pay to : PKMC



GOOD SHEPHERD METHODIST CHURCH OF PHILADELPHIA

담임목사 박지훈
ADDRESS 1490 Dillon Rd. Ambler, PA 19002
TEL (215) 654-9101
HOMEPAGE philagsmch.org



주일에배

God is spirit, and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.

경배찬송	“하나님 아버지의 마음” 외 2곡
기도	공동기도문
신앙고백	사도신경
환영인사 / 교회소식	박지훈 목사
공동체 찬양	“너를 위해 기도해”
성경봉독	누가복음 15장 11-32절
말씀	가스펠프로젝트 신약2-4 “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?”
결단찬양 및 봉헌	“하나님 아버지의 마음”
축도	박지훈 목사

금요기도회

창세기 강해 26	창세기 15:1~21
-----------	-------------



오늘의 말씀

누가복음 15장 11-32 새번역

11 예수께서 말씀하셨다. “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
12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‘아버지,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’ 하였다.
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.
13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,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, 그 재산을 낭
비하였다.
14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,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,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.
15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, 몸을 위탁하였다.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
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.
16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,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
람이 없었다.
17 그래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, 이렇게 말하였다. ‘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
아도는데,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.
18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,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. 아버지,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
를 지었습니다.
19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,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.’
20 그는 일어나서, 아버지에게로 갔다.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,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
여겨서,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, 입을 맞추었다.
21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. ‘아버지,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. 이제부터 나는 아
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.’
22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. ‘어서,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, 그에게 입히고, 손에 반지를 끼
우고, 발에 신을 신겨라.
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. 우리가 먹고 즐기자.
24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,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.’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.
25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,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,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
소리를 듣고,
26 종 하나를 불러서, 무슨 일인지를 물어 보았다.
27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. ‘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.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, 주인 어
른
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.’
28 큰 아들은 화가 나서,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.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.
29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. ‘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, 아버지의
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, 나에게도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,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
습니다.
30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 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,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
아지를 잡으셨습니다.’
31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. ‘얘야,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.
32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,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,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
하다.’”

예배담당 및 순서안내

	3월 1일	3월 8일	3월 15일	3월 22일	3월 29일
대표기도	공동기도문	김지영 권사	윤희주 권사	김종국 장로	김주현 성도
봉헌	김지영 권사				
안내봉사	윤희주 권사				